

차익 4억 '로또아파트'... 신도시급 주거환경

분양 하이라이트

'디에이치 자이 개포'

1996가구 중 1690가구 일반분양
시세보다 저렴한 평당 4160만원
분당선·3호선 도보가능 역세권
IoT 등 최첨단 스마트시스템 적용

서울 개포주공 8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9일 모델하우스 오픈을 앞두고 벌써부터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주변 아파트(3.3㎡당 4600만원)보다 분양가(3.3㎡당 4160만원)가 싸다는 인식 때문에 청약에서 당첨될 경우 4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약열풍이 예상되는 이유다. 84㎡ 기준으로 분양가는 14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인근에서 가장 비싼 '래미안 블레스티지(개포주공2단지 재건축)' 시세에 비해 4억원 정도 싼 편이다.

분양 전문가들은 중소형 평형의 경우 청약 가점이 최상위권이어서 당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690가구 일반분양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GS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개포주공8단지공무원임대아파트의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 자이 개포' 모델하우스를 9일 오픈한다. 1996가구 중 1690가구(63~176㎡)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는 강남권 재건축 사업 최대 규모의 일반분양 물량이다. 임대아파트여서 재건축조합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도 특징.



디에이치 자이 개포.

전용면적 별로는 ▲63㎡ 188가구 ▲76㎡ 238가구 ▲84㎡ 772가구 ▲103㎡ 240가구 ▲118㎡ 204가구 ▲132㎡ 42가구 ▲173㎡PH 5가구 ▲176㎡PH 1가구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달 28일 3.3㎡당 평균 분양가 4160만원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분양 보증을 발급받았다.

현재 HUG는 과도한 집값상승을 억제

하기 위해 분양 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장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해당 지역에서 입지·세대수·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 제한하고 있는데 디에이치 자이 개포는 기존 분양단지의 100% 수준으로 분양 보증을 발급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강남구청과 협의를 거쳐 최종 분양가를 확정하고 9일 모델하우스를 연다.

◆신도시급 주거지·초역세권

개포택지개발지구(강남구 일원동, 개포동, 도곡동 일대)는 약 4만1000여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신도시급 규모의 주거지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는 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이 바로 옆에 붙어있고 지하철 3호선 대청역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단지다.

또한 커뮤니티 시설은 약 1만900㎡의 대규모로 조성된다. 기초체력검사실, 피트니스센터, 인도어 조깅트랙과 실내수영장, 실내골프연습장, GX룸, 사우나 시설 등도 들어선다. 특히 디에이치 자이 개포는 미세먼지 패키지(미세먼지 신호등, 미스트분사 등)를 적용한다. 다양한 특화 커뮤니티시설도 조성된다. 맘스라운지, 스카이라운지, 음악연주실, AV룸(영화), 독서실, 스티디룸, 북카페, 게스트하우스, 컬처라운지, 시니어라운지 등이 들어선다.

또한 단지 내에는 시니어실과 어린이집을 비롯해 커뮤니티 지원시설(창업지업센터·체육시설) 등도 조성된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는 핵심 기술이 집약된 최첨단 스마트 시스템들이 적용된다.

사물인터넷(IoT) 홈 시스템을 통해 스마트폰 소지만으로 공동현관을 출입하며 앱을 통해 조명, 가스, 난방, 냉방, 환기 등의 제어가 가능하다. IoT 기술과 호환이 되는 공기청정기, 에어컨, 제습기, 로봇청소기 등의 제품과 연동도 가능해 원격 조절할 수 있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 입주고객은 별도 AI(인공지능)스피커를 통해 음성인식서비스(기기제어, 생활정보 등)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metroseoul.co.kr

증권 다이제스트



삼성자산운용

삼성 누버거버먼

이머징단기채권 펀드

삼성자산운용은 7일 중국, 브라질, 터키 등 이머징 국가에서 발행하는 달러표시 단기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삼성 누버거버먼 이머징단기채권 펀드'를 출시하고 삼성증권에 의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국내 단기채권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면서 채권의 잔존기간을 3년 이내로 투자하여 금리상승 리스크를 방어하고 낮은 변동성을 추구한다. 미국 누버거버먼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다.

펀드 투자대상은 4개 지역, 98개 국가의 국채, 정부보증채, 회사채 등으로 전세계 지역·국가·국가 등에 분산투자함으로써 단일 국가에 대한 투자 위험을 낮춘다.

/김민호 기자 kmh@



키움증권

세전 연 15% 수익추구

삼성전자&신한지주 ELS

키움증권은 삼성전자보통주와 신한지주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을 공모한다.

'키움 제781회 ELS'는 원금 90% 지급 조기상환형 ELS로 만기가 1년이다. 조기상환평가일(3·6·9개월)에 기초자산인 삼성전자 보통주와 신한지주 보통주의 주가가 최초기준가격 이상이면 세전 연 15%의 수익률로 조기상환된다.

조기상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만기평가일(12개월)에 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보다 상승했다면 기초자산 상승률이 낮은 종목의 상승률만큼 수익으로 지급한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사후제재→사전예방... 회계감리 선진화 추진

금융위, 민관 합동 TF 발족

금융위원회는 7일 감리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합동 '회계감리 선진화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10명의 민간위원과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 공인회계사회 감리본부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감리시스템 선진화의 필요성과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

하고, 회계개혁이 성공하려면 제도개선과 함께 회계감리·제재 등 집행의 선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는 최근까지 연이은 대규모 회계 부정 사건들로 인해 값비싼 학습 비용을 치렀던 만큼 '더 이상의 회계개혁은 없다'는 자세로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회계개혁이 성공하려면 제도의 도입뿐만 아니라 감리·제재 등 집행의 선진화도 병행돼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김학수 단장은 "과징금 상한이 폐지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

돼 회계기준 위반여부 판단을 더욱 신중히 해야한다"며 "그동안 우리 회계감리 시스템이 우리 기업회계의 대내외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는지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년 간 동양·효성그룹(2014년), 대우건설(2015년), 대우조선해양(2016년) 등 대규모 기업의 회계분식이 연이어 발생해 기업에 대한 효율적 회계감독이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단장은 "2010년에 시장의 전문가적 판단을 존중하는 원칙 중심의 회계

처리기준(IFRS)이 전면 도입됐음에도 기존 해석·안내 등 기업·감사인에 대한 사전 지도와 지원은 미흡한 반면, 사후적 발·제재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추진단은 이런 문제점과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회계감독의 틀을 '사후제재'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김 단장은 "회계감독의 틀을 '사후제재'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해 회계오류의 사전예방과 적시 수정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대한 감리를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코스닥협회는 7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코스닥상장법인의 M&A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스닥협회 정진교 상무(왼쪽부터), 송윤진 상근부회장, 김재철 회장,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이용성 회장, 오세현 상근부회장, 김종술 상무.

코스닥협-벤처캐피탈협 상장법인 M&A지원 MOU

코스닥협회는 7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코스닥상장법인의 인수합병(M&A)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스닥 상장사들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 및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향후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해 M&A거래정보망 활용, M&A 물건 발굴 및 추천

등 코스닥상장법인에게 양질의 M&A 정보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코스닥상장법인들의 M&A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M&A 활성화 및 수익모델 다변화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영지 기자

GS25 '구글 플레이 기프트 카드'

BC신용·체크카드로 구매 하세요

BC카드, GS25와 제휴

비씨(BC)카드는 신용·체크카드로도 구글플레이 기프트 카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에스(GS)25와 제휴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구글플레이 기프트 카드는 현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었지만, 비씨카드와 GS가 업계 최초로 제휴하면서 오는 8일부터 전국 GS25 편의점에서 신용·체크카드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휴를 기념해 오는 8일부터 4월 7일까지 구글플레이 적립 쿠폰과 불답볶음면 교환권, 검은사막 모바일 아이템을 추가로 제공한다.

박상범 가맹점영업단장은 "구글플레



BC카드는 GS25와 제휴해 업계 최초 신용·체크카드로 Google Play 기프트 카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활발히 이용하는 2030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제휴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유안타증권

美증시상장 ETF 투자

히든알파 EMP랩 출시

유안타증권은 7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해 꾸준한 인컴 수익을 추구하는 랩어카운트 상품인 '히든알파 EMP랩(글로벌인컴형)'을 출시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를 활용한 EMP(ETF자문일임형) 상품이다. 전 세계 ETF 시장의 약 75%를 차지하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다양한 글로벌 ETF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해 분산투자 효과를 볼 수 있다.

자체 자산배분 모델에 따라 경기사이클 국면별로 주식, 채권, 리츠 등의 투자 비중을 달리해 투자하는 게 특징이다. 특히 연 3% 이상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를 우선적으로 편입함으로써 자본차익 외에 꾸준한 인컴(income)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손영지 기자